



내외소식

11대 대관장에 해롤드 비이 리

지난 7월 3일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이 서거하신 후 11대 대관장으로 해롤드 비이 리 사도가 성임되었다.

리 대관장님의 보좌로는 제1보좌에 태너 형제가 제2보좌에는 롬니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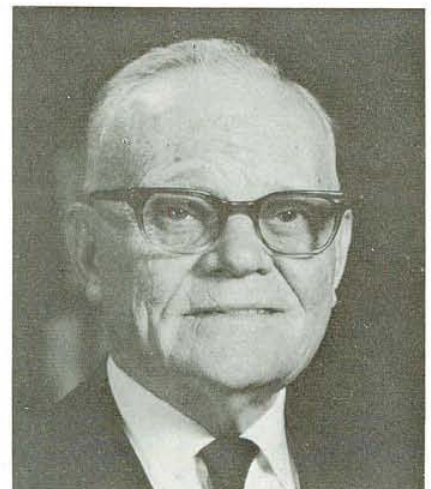
리 대관장님은 1954년 9월과 197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신바 있다.



엔 엔든 태너 부대관장



해롤드 비이 리 대관장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한국 지역 책임자에 스로버 형제와 앤드류스 형제

교회 본부는 급증하는 회원을 효과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감독조직으로 지역 대표를 두고 있는데 한국 지역 대표에 전 한국 선교부장이던 스토퍼 형제와 전 북극동 선교부장이던 앤드류스 형제가 새로 부름을 받았다.

교회 본부가 집계한 교회 회원 증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60년부터 1972년까지의 지난 12년 동안 교회는 전세계적으로 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내가 50%, 미국외의 지역이 무려 250%의 놀라운 증가율을 보임으로서 취해진 조치이다.

스토퍼 형제와 앤드류스 형제는 오랫동안 한국에 봉사한바 있으며 그들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로버트 에이치 스토퍼— 부리감 영 대학교의 정치학 부교수로서 1937년에 개종하여 감독, 지부장, 군인 지방부장의 직을 역임한바 있으며 특히 1968년 부터 1971년 까지는 한국 3대 선교부장으로 봉사한바 있다.

폴 씨 앤드류스— 현재 그는 하와이에 있는 카노헤 스테이크 부장단의 보좌로 봉직하고 있으며 하와이에서 부동산 중계업을 하고 있다.

그는 쏘트 레이크 출신으로 부리감 영 대학과 유타 대학을 졸업했으며 전 북극동 선교부장으로 일한바 있다.

메이슨 형제 내한

지난 7월 15일 오후 6시 15분 메이슨 형제가 대한항공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교회 본부 의료 협회가 한국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조사하기 위하여 내한했는데 16일에는 선교부에서 회의를 가졌다. 그는 한국성도로서의사인 형제들과 의견을 나누는 뒤 18일 이한할 예정이다.



로버트 에이치 스토퍼



폴 씨 앤드류스



중부 지방부 탄생

지난 7월 30일 대전 지부에서는 중부 지방부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첫 대회를 가졌다.

대전을 중심으로 청주 군산 전주지역을 포함할 중부 지방부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지방부장단의 조직이 있었는데 지방부장에는 박 주인 형제를, 그의 제1보좌에는 이 규찬 형제를, 제2보좌에는 조 용희 형제를 각각 성임했다.

본 지방 대회장에는 약 2백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입주의 여지도 없었으며 문 밖에까지 늘어선 모습은 흐뭇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성도들은 지방부의 탄생을 맞이하여 이 지역이 크게 발전할 결과라고 모두들 기쁨을 금치 못했다.

이날 모임은 오전에 신권회와 제1총회, 오후에 간증회를 가짐으로서 모든 모임을 마쳤는데 특히 오후에 가진 간증회에서는 아직 익숙지 못한 간증으로 그들의 불타는 간증을 전하느라 시간이 모자라기도 했다.

10여년 동안의 신앙 생활을 해 온 중부 지방부장인 박 주인 형제는 그의 소견과 함께 중부 지방부의 발전을 다짐했다.

특히 지방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선교부장, 이 호남 형제, 박 재암 형제, 호남 지방부장인 박 병규형제, 서울 동 지방부장인 김창선 형제등 여러 교회 지도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한층 더 빛내주었다.

또 이제까지 지역이었던 청주와 군산이 모두 지부로 승격했으며 지부장도 선교사에서 한국 성도로 모두 교체했다.



중부지방부 창립 30. 1972. 7. 30.